

중국서 위안부 할머니 입국

55년만에 고향땅... '어머니' 외마디 절규

94.6.11. 22:21
양상우 기자

일제시대 군대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은 뒤 중국 벽지에서 한평생 삶을 살아온 '잊힌 종군위안부' 정학수(69·중국 안후이성 타이허시현 싼타향) 할머니가 10일 꿈에도 그리던 고국땅을 55년 만에 다시 밟았다.

이날 오후 대한항공 6145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정 할머니는 북받치는 설움을 참지 못하고 눈물만 쏟아냈다.

그동안 세월이 너무 흘러 고향인 경북 월성군에 살던 부모 형제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나고 이날 공항에는 사촌오빠 정연홍(69)씨와 친을게 강용순(67)씨, 조카 등이 마중나와 흐느낌 속에 정 할머니를 맞았다.

이미 몇몇 가족의 이름과 옛 지명을 빼곤 한국말을 까맣게 잊은 정 할머니는 오빠를 끌어안고 "어머니"라는 외마디 절규만을 되풀이했다.

정 할머니의 비극은 14살 때인 지난 39년 가을 부산 부둣가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있다 무자비한 일본 헌병에 납치되듯 끌려가면서 시작됐다. 정 할머니는 그길로 하얼빈까지 끌려가 몸서리치는 위안부 생활을 시작했다.

산동 등지로 끌려다니며 5년

동안이나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지옥같은 생활을 하던 정 할머니는 몇 차례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44년 가까스로 일제의 손아귀를 탈출한 정 할머니는 한때 국민당군 출신의 한 중국인과 만나 살았으나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남의 집 허드렛일, 건축공사장 막일 등을 전전하며 살아온 정 할머니는 중국 현대사의 격류에 휘말려 노동교양소에 수용돼 몇 년간을 지내다 그곳에서 만난 지금의 중국인 남편과 살고 있다.

이번 정 할머니의 귀국은 중국 방문 도중 우연히 정 할머니의 소식을 들은 서울 상도성결교회 김원동 장로의 노력으로 8개월 만에 이뤄졌다.

김 장로는 "정 할머니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오직 고국땅을 다시 한번 밟아보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며 "여생이라도 편히 살다 가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할머니는 오는 21일까지 머물며 꿈에도 잊은 적이 없는 경북 월성군 감포읍 점촌리 고향과 선산, 유년기를 보낸 부산 등지를 찾을 계획이다.

4
7
로
해